

## 종교개혁과 기독교세계관운동

종교개혁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절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다. 내년이 500주년이다. 그것은 출애굽 같은 구약역사의 핵심 사건을 기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성탄과 부활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오순절처럼 복음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없는 기념일이다. 개신교의 출발점이며 특히 우리 기독교세계관 운동도 거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 중세의 이원론적 세계관의 극복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다. 그것은 중세의 사회와 문화 전반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중세의 역사는 길다. 단일 문화로는 가장 긴 기간에 걸쳐있다. 어거스틴이 활동한 4세기 중반부터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른 16세기까지 무려 1000여년에 걸쳐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은 유럽에 완전히 정착했다. 로마뿐 아니라 북방에서 들어온 야만족까지 교화시켜 지금 우리가 아는 서구의 기독교적 문화를 이룩했다. 지금도 유럽의 삶과 문화에는 그 자취가 역력히 남아 있다.

안타까운 것은 보편적 교회를 자처했던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상실한 것이다. 성경의 진리와 세계관은 초대교회 이래 꾸준히 그리스 로마의 문화 비전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세의 건축물이나 회화에 명백히 드러난다. 바실리카가 좋은 예이다. 본래 그리스 로마의 신전이나 공회당의 건축양식인 바실리카는 주랑이 벽체 없는 천정을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교회의 건축은 이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달라진 것은 좌우에 날개를 달아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게 했을 뿐이다.

이처럼 전통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보다 복음이 그 위에 덧붙여지는 중세의 종합은 심각한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문제를 배태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두 자연(그리스-로마 문화)과 은총(기독교 복음)의 이원론

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중세는 이방문화라는 케익을 복음의 생크림으로 덮은 형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복음이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배적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다. 이는 지금도 프롤레나나 켈른 같은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높이 솟아있는 대성당의 위용이 성숙 이원론적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 이신칭의/이신득의


중세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카톨릭 신학 전반에 그대로 드러난다. 자연인 티코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i)으로 변한다는 화체설이 좋은 예이다. 구원론의 이원론적 이해는 더 심했다. 선행과 고행을 통해 노력하면 은총이 더해져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다. 행위 이하기 은혜의 구원론은 가장 잘못된 성경적 복음의 왜곡이었다. 이는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영혼이 천국에 이른다는 이단설을 낳아 교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다. 결국 그것에 대한 루터의 항의가 종교개혁의 불을 붙였다. 잘 알려진 대로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성실히 선행과 고행을 했으나 구원의 감격은 고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 그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풀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확신과 평안에 이르게 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요 그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했다는 95개조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모두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유명한 문구로 시작된다. 루터가 훗날 윌스회의에서 했다는 말처럼 "어찌다가 자신 한 명을 빼고 은 유럽천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이처럼 철저히 복음을 떠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상황 인식이 그 첫머리에 담겨 있다.

###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출발이요 애국된 복음의 회복이다. 구속의 본질은 죄로 잃어버린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찾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참된 기념은 개신교의 생일보다는 복음의 회복을 축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좁은 의미의 복음적 신학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개혁주의는 신학이 아니라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강조점은 루터의 복음적 구원론을 토대로 보다 삶 전체의 포괄적인 개혁을 지향했다. 그의 모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와 "하나님의 주권"(主權) 사상이며 그에게 초한 "경건" 즉 거룩한 구별된 삶인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바른 복음의 회복과 함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義)를 따라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롬6:20, 12:1-2) 함을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개혁주의는 문화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안목이요, 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의 태도이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사명은 이 개혁주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미래의 도전에 부합한 형태로 재창조해내는 데 있다.

대학시절 종교개혁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개혁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도교수께 종교개혁에는 피를 끓게 하는 것이 있다고 감히 말했던 것도 기억난다. 개혁 정신으로 준비하여 교회를 섬기겠다는 각오도 했었다. 하지만 이젠 내가 그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두렵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이요, [참된]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라는 말처럼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개혁을 통해 생생히 살아야 한다. 



신국현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재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신통의 대중문화론」, 「신국현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인경(이성 V.P)」,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묵하는사람」 등이 있다.